

공천취소 후보, 거취 향방에 '주목'

정우택·장예찬 '무소속 출마' 강행... 정봉주 "당 결정 수용"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출마자에
"불관용 원칙 고수할 것" 뜻 밝혀

정 전 의원 "20년 만의 재도전 멈춰
부족했던 소양에 대해 사죄 드려"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막말' 등 여러 사유로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의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이들은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도태우 변호사, 장예찬 전 최고위원 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있다. 공천이 취소된 경우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일명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의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즉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경선에서 패한 이들은 탈당 후 같은 지역구 출마가 어렵다는 의미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이인제 방지법'은 '경선후보'로서 당에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 즉 패배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된 뒤의 경우는 상정하지 않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공천이 취소된 이들은 모두 당내 경선을 거쳤다. 이 때문에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일단 지난 14일 '돈 봉투 수수 의혹'



'막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된 정봉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토관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경우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북 청주상당에서 정 부의장의 공천을 취소하고, 청주청원 경선에서 패배한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공천한 바 있다. 대구 중·남구 경선을 뚫고 후보로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수영구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가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부족하고 철없는 20대 시절의 말실수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에게는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이 분명하다. 과거와 같지 않다. 재입당이나 복당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일 무소속 출

마 후 재입당과 관련해 "무소속 출마는 본인 선택이지만,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설령 당선된 다음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것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공천 취소 후보자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당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서울 강북을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지만, '복발 경품'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인해 공천이 취소됐다.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에서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경선 후보로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의원과 '알릴레오'로 알려진 조수진 변호사를 내세웠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치인 정봉주가 20년 만의 열정적인 재도전을 멈추려 한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강북 주민 여러분 죄송하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도 부족했던 제 소양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여러 차례 닦는 등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oul.co.kr

이재명, 마포 찾아 '정청래·이지은' 지원

위증교사 혐의재판 출석 전 유세 지지
양문석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것
興, 자신들 과거 발언부터 반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출마자인 이지은 서울 마포갑 후보, 정청래 마포을 후보와 함께 경의선숲길을 찾아 "선거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심판 그 자체"라며 "4월10일 심판의 날에 마포구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시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 속한 경의선숲길을 찾아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났다. 주말 사이 경기남부를 순회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 띄우기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마포구 일정 하나만 소화했다. 이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오후에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늘 사실 저는 오후에 재판을 받으러 가야한다"며 "1분1초가 천금 같고 여삼추인데, 시간을 뺏겨서 재판 받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독재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의지도 많이 생긴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 앞부분을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식사 대접',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시간과 돈을 빼고 고통을 주는, 정말 무도한 폭력 정권에 대해서 국민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적인 평등한 나라, 법앞에 공평하게 취급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방문해 마포갑 이지은 후보(오른쪽), 마포을 정청래 후보와 함께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세번 연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 모욕 논란을 받고 있는 양 후보에 대해 "발언이 지나쳤다. 사과를 해야한다. 과거에도 사과했던 것으로 알고 지금도 또 사과하고 있다"라며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되시는 광상언 민주당 종로구 후보와 통화를 했다. 광 후보가 (양 후보가) 잘못된 것은 맞다. 그러나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노 전 대통령을 위하는 조직이 됐나, 이상하지 않냐"라고 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풍자연극 '환생경제'를 언급하면서 "환생경제에서 언급한 그들이 한 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환생경제는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풍자하는 의도로 기획됐지만, 실제 공연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이 난무하는 등 풍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지지자들이 "돌빵(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민주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찍어야 한다는 단어)을 연호하자 이 대표는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의선숲길에서 지지자들과 쓰레기를 쥔던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는 이 대표 측과 동선이 겹쳐 이 대표에게 인사를 하려 했지만 지지자들에게 "배신자" 소리를 듣고 결국 돌아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도 '이종섭·황상무' 문제제기 나서

'수도권 위기관' 재점화에 대응

이종섭 주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회갈 발언' 등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이를 두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는 해당 이슈가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장관의 즉각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경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뿐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들도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MBC라디오에서 "(이 전 장관은) 본인이 들어와서 조사 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의 잘못이 없었다고 해도, 당연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회의 후 황상무 수석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전체적인 대표로 결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용산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여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수도권 위기관'이 재점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벌여졌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에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출국과 황상무 수석의 '회갈 발언'이 악재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당은 국민들의 민심을 최선에서 느끼고 있는 조직"이라고 밝혀, 해당 이슈가 선거 판세에 악재임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한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로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종섭 호주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자진사퇴하라"며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다.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마 이번주 안으로 이종섭 전 장관 건이나 황상무 수석 건은 정리가 될 것"이라며 "평소라면 달랐겠지만 대통령실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천이 끝나면서 바람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잘 해야 하니 장예찬·도태우 예비후보를 물러나게 한 것"이라며 "그만큼 비중이 큰 것이 이 전 장관 건이다. 군사기와도 관련이 있고, 젊은 층의 인식도 중요해서다. 황 수석은 본인이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